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중국 겨냥 생물보안법안 통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생물보안법안 찬성 11, 반대 1로 통과

- 3월 6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BGI 및 Wuxi AppTec과 같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11대 1로 통과시킴.
-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말에 발의된 법안임.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상황임.
- 이 법안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통과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음. Wuxi AppTec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으며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및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에 추가로 새로운 캠퍼스를 개설할 예정임.
- 법안의 내용은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의 BGI와 그 계열사인 MGI 및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과 그 계열사인 Wuxi Biologics 등과 같은 우려대상 바이오기업과 계약하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우려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금지하는 것임.
-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외국 특정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지명한 이들 우려기업들과의 거래 및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8일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의 미국인 민감 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 우려국가의 관련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 체결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1. US Senate bill targeting China's BGI, WuXi AppTec moves forward, Reuters, 2024.3.6.
2. US Senate Targets Chinese Biotech Firms BGI, WuXi Apptec in New Security Bill, BNN, 2024.3.6
3. 바이든 대통령, 미국인 민감정보 해외이전 규제 행정명령 서명, 한국바이오협회, 2024.2.29